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4차 회의

7월25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4차 회의가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14층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기·강대석·이모숙·이철갑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도시공원 문제 심층보도 돋보여… 지역현안 꾸준한 관심을”

◇김윤하=올해 상반기에는 최순실 사태, 대통령 탄핵, 대선, 5·18 37주년 등 굵직한 행사가 진행돼 뉴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에 광주일보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앞서가는 지면을 제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작부터 살펴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바람 난 프 로야구’다. KIA 타이거즈의 무서운 질주는 일상에 지친 지역민 에게 모처럼의 활력소가 됐으며 독자들은 프로야구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는 KIA 타이거즈 선수들의 활약 상에 대한 뒷이야기를 흥미로운 기사로 제작했다. 특히 6월8일과 7월14일 두차례에 걸쳐 신문 1면과 3면 2개면에 KIA 타이거즈 소식 을 다루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했다.

다음으로 사회면 현장고발 기사다. 7월5일자 ‘비만 오면 유독물 질 몰래 방류, 하남산단, 광주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호남권을 대표하는 산단인 하남산단에서 광주시의 관리감 독 소홀 등으로 오염정전에 폐유·폐수를 방출하고 있다는 내용 의 기사다. 올해 들어서만도 물고기 집단폐사 하는일이 7번이 나 발생했다. 이렇듯 사태가 심각함에도 단속실적이 없는 광주시 와 관산구의 관리감독문제를 지적한 것은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 을 찾아 발로 뛰어 만들어낸 기사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 기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후속기사를 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5·18 관련 기사에 대해 말하자면 올해 5·18기사중 가장 돋보였던 기사는 5월15일자 1면 ‘나도 왔다 총알 떨어질 때 까지. 조준사격에 시민 수십명 쓰러져’라는 제목의 머릿 기사였 다. 5·18당시 도청앞 집단발포 때 공수부대 현장 지휘관으로서 는 최초의 증언이었으며, 시위군중을 향한 집단발포 전에 군 내부적 으로 조직적인 실탄분배가 있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3면에 실 린 현장 지휘관의 인터뷰 전문까지 눈에 띄는 제작이었다. 아울러 5월18일자 1면에 ‘5·18 행방불명자 75명 37년의 절규’라는 제 목의 기사 편집은 매우 돋보였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진과 이를 을 모두 실어 지금까지 외면당했던 행방불명자 매장지 발굴에 대 한 여론을 인상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김남기=지난 5월 대선을 치르면서 호남 인재들이 중앙정부 로 발탁돼서 가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호남 인 재육성의 길로 생각해야한다. 호남의 인재육성을 통해 인적네트 워크가 단단히 구성되길 바란다. 지금 이 시기에 광주·전남의 인 재를 중앙에 심어서 광주·전남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한다.

6월14일자 ‘도심 공원 개발 그레도 생명의 숲은 살려야’를 보면 나무를 베기는 쉬워도 키우기는 어렵다. 도심공원 일몰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한다. 전 세계가 기후 온난화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광주시민들의 관심을 모아 도시 숲을 보존하 고 생명의 숲을 살려야 한다. 또, 광주시가 ‘1도 낮추기 프로젝트’ 를 하고 있는데 녹지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속적 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월21일자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도 나라도 산다’는 사실을 보면 지역신문에 대한 선진 외국의 지원정책과 시사점,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디지털문화가 나날히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지만 신문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신문만큼 지역문 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 지역신문에 대한 말뿐 인 정책이 아닌 실제 지원이 필요하다.

◇강대석=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광 주일보가 지역문제에 대해 선제로 기획해 심층보도하는 내용을

보며 독자들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난 5월9일, 문재인 정부의 출발과 함께 광주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정권의 중심으로 전환된 분위기를 광주일보의 보도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5월12일부터 9회에 걸쳐 기획보도한 ‘문재인 시대, 광주전 남현안점검’은 정권교체에 맞춰 빠르게 대응한 보도로 매우 시 의적절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할 현안을 잘 짚어냈다고 평가한다.

보도내용을 보면 광주·전남의 목은 현안이었던 정부인사 소외 문제, 5·18 3대 과제 해결 문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빛가람혁신 도시·광주군공항이전·SOC 영호남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중앙정부에는 지역핵심공약 이행과 수요중심의 예산 원칙 수정을 건의하고 시도에는 지역발전의 대전환기를 만들 수 있는 그랜드플랜을 만들자고 제안함으로써 현안과 대책을 적절 히 제시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6월20일부터 3회에 걸쳐 기획보도한 ‘일몰제 도시공원 어떻게’ 의 보도 외 수차례의 보도에서 2020년부터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같은 날 18면에도 비슷한 사진이 올랐다. 댄스팀들의 사진만 있지 댄스대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왜 열렸는지, 청소년들이 댄스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눈요깃거리 사 진으로만 지면을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사진들이 이 시점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7월 18일자 ‘광주 동구청 폴리 관리 허술’ 기사를 보면 예견됐 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폴리는 광주비엔날레의 대표 산물 중 하나이고 도심을 장식하는 작은 예술품이다. 사실 광주시민들 중 폴리 를 알고 폴리 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폴리 가 있 허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광주일보에서 계속 다뤄졌으 면 한다.

7월14일자 ‘광주인구 30%로 늘 때 차 7배 증가’를 보면 광주시 민들이 왜 불편함을 겪는지 여실히 드러나있다. 도시민의 50%가 넘는 사람이 자가용을 이용하니가 정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런 것들에 대비해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해야한 다. 또, 주차문제도 심각하다. 송정역 이용실태만 봐도 그렇다. 광



광주일보 독자위원들이 지난 25일 편집국 회의실에서 김윤하 위원장 주재로 지면평가 회의를 하고 있다.

인해 2020년까지 공원면적을 매입하지 않으면 개발제한이 해제 되는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주시의 녹장대처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시민의 알권리를 일깨운 좋은 보 도였다고 생각한다.

6월21일자 1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광주시·전남도·영광 군의 원전방재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촉구한 보도 역시 한빛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 의 식을 일깨운 보도였다.

아쉬웠던 보도는 7월6일자 ‘담양 우박 맞은 소나무 고사 진행’ 사진보도다. 불에 탄 소나무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 여 독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으나 정작 설명을 담은 관련기사는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사진과 함께 우박피해 현황, 산림고사면적,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기사가 있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모숙=예전에 비해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만 구독하는 사람들은 광주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한 다. 또, 일반적으로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많 다고 생각한다. 신문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신문 1면에 사진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의 독특 한 것, 이슈가 되는 사진이어야 한다. 하지만 7월3일자 1면에는 청소년 축제 대상팀의 파워풀 댄스 사진이 들어가 있다. 이 댄스 대회가 청소년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주역이나 송정역에서는 주차문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짚어보고 시민들에게는 송정역 접근하는 다 양한 방법, 우리의(시민) 생각은? 등의 캠페인 식으로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 또 계속 직질한 대중교통노선, 환승 시스템의 변 화 등도 함께 이슈화 해주길 바란다.

◇이철갑=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싶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광주 일보에서도 공원일몰제 대책에 대해 썼지만 광주시가 공원을 매 입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 로 공영개발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7월3일자 ‘광주시 도시공원 아파트 건립 재검토’기사 보도는 문제 에 대한 지적이 잘 드러나 있다. 광주시에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도시공원 일부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말이 안된다.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크고 시민들도 우려하는 입 장이다. 광주시의 이같은 계획이 광주도시 전체 발전계획과 관련돼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과 광주시민의 여론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7월18일자 ‘광주 시내버스 기사 체력 평균 이하’기사는 피로누 적에 고령운전자도 늘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최근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도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보도는 시의적절했으며 앞으로도 좋은 기사가 나오길 바 람다. /정리·사진=전원재기자 ej6621@kwangju.co.kr

김윤하
전남대 의대 부학장·산부인과 교수

잘나가는 KIA 기사 일상 활력소
5·18 특집 인터뷰·편집 인상적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

새 정부 호남 인사 네트워크 필요
지역신문 실질적 지원 절실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탈원전 기류 한빛원전 점검 적절
산림 고사 사진, 세부 취재 아쉬워



이모숙
송은갤러리 관장

‘청소년 축제’ 화보 설명 부족
송정역 등 교통문제 짚어줘야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공원일몰제 공영개발이 답
도시발전계획 여론 반영을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